

쓰레기 감량화·재생이용 위한 일본의 신리사이클 시스템 추진안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10월에 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자원 쓰레기를 재활용 업자에게 유통시키는 공익법인을 만드는 등 감량화와 재생이용을 촉진하는 신리사이클 시스템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신 법안을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침을 정했다.

생활환경심의회 폐기물처리부회의 폐기물감량화·재이용전문위원회가 10월 중순 정리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이용 추진에 관한 보고를 검토한 결과 후생성이 방침을 정한 것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로 요구하리라 예상된다. 동 보고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본다.

1.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이용 추진방향

생활환경심의회 폐기물처리부회의 폐기물감량화·재이용전문위원회가 정리한 '폐기물의 감량화·재생이용 추진 등에 관하여'란 보고에서 이번에 제안한 폐기물의 감량화·재이용 방법은 ▲용기 등 포장재 ▲신문·잡지 등 폐지류 ▲전기기계 기구류 ▲음식물 찌꺼기 ▲사업계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6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 전문위원회가 지적한 폐기물의 감량화·재생이용 추진 정책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현행 구조가 ▲제조·판매사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이용의 각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이용을 촉진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폐기물 처리 책임의 대부분이 시·동·리에 치우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폐기물 처리의 책임과 비용을 사업자, 소비자, 시·동·리 사이에 서로 구분하여 제품 개발부터 재생이용에 이르는 각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화하고 재이용을 촉진해 경제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사회경제체제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동 시스템 구축에서 각 과정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노력한다.

▲사업활동에서 재생이용이 쉬운 제품의 개발·제조, 재생품·재생자원의 적극적인 사용에 노력한다.

▲자기가 제조 판매한 제품이 폐기물이 된 경우에 회수나 재생이용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다한다.

2) 소비자

▲가능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폐기물이 배출됨에 있어서 자원 쓰레기의 분리수거에 협력하고 배출료에 해당하는 처리비용을 부담한다.

▲재생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생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3) 시·면·리·동

▲스스로 책정한 일반폐기물 처리 계획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분리수거의 철저, 지역내의 사업자에 의한 감량화 장치나 주민단체, 수집업자 등에 의한 자원쓰레기 수집에 대한 지원 등 종합적인 일반폐기물 수집, 리사이클 시스템의 확립을 도모한다.

▲일반폐기물의 재생이용에 필요한 재활용센터 등의 시설 정비에 노력한다.

▲재생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생품의 적극적인 사용과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4) 시·도·군

▲시·면·리·동을 벗어난 광역적인 시설 정비를 추진한다.

▲자원쓰레기의 회수·재생경로를 담당하는 폐기물 재생사업자의 건전 육성에 노력한다.

▲재생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생품의 적극적인 사용과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5) 국가

▲폐기물 감량화·재생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규칙제정을 추진한다.

▲시·면·리·동, 시·도·군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폐기물 감량화·재생이용에 기여하는 기술의 개발, 보급을 추진한다.

▲폐기물 재생사업자의 건전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재생품의 수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생품의 적극적인 사용과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다음에는 각종 폐기물에 대한 공통

적이고 수평적인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전부터 지방공공단체나 사업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포장폐기물에 대하여 독일이나 프랑스를 참고한다.

▲시·면·리·동에서의 분리수거 실시와 제조·판매사업자에 의한 인수·재생이용에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서는 일본의 실정에 맞는 신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재사용 용기의 사용 확대와 시·면·리·동과 사업자의 협력에 의한 포장폐기물의 회수·재생이용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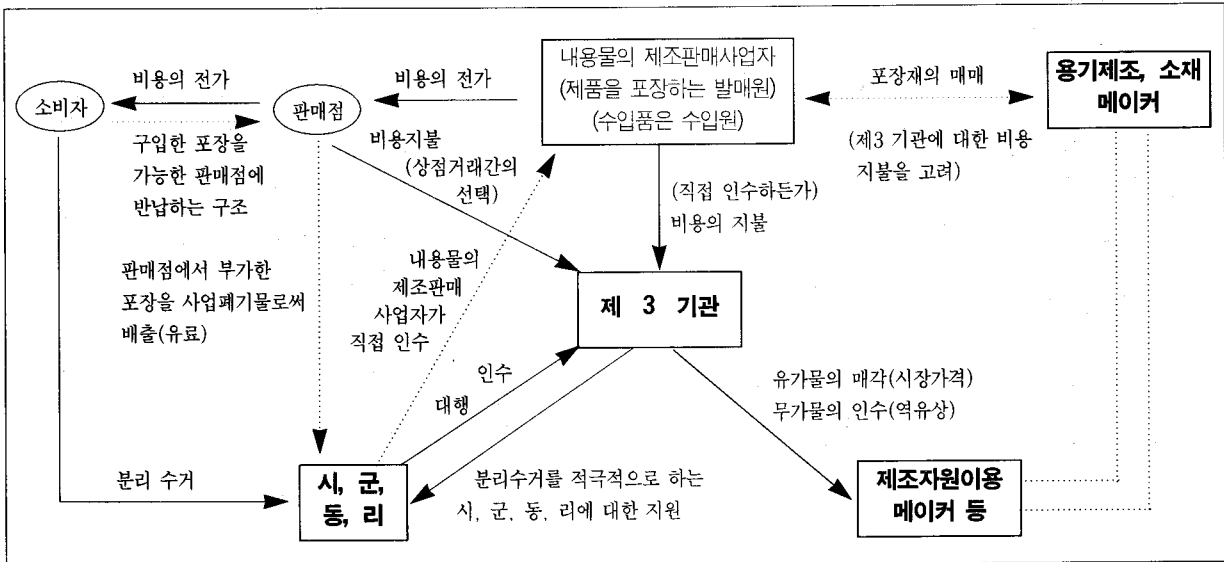
2. 신재활용 시스템

신 시스템의 골간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시·면·동·리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회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시·면·동·리 단계에서 최종 처분장의 부족 정도를 감안한 계획적인 분

(그림 1) 생활환경심의회 폐기물처리부회의 폐기물감량화·재이용전문위원회가 제안한 신리사이클 시스템



리수거체제의 정비·추진을 도모한다.

▲종량제에 의한 처리 수수료 징수를 추진한다.

▲회수와 재생처리 능력 사이에 과대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적인 분리수거 체제의 정비, 재생기술의 개발·보급, 플라스틱 유화시설 등 재생이용 시설의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를 기초로 제안한 시스템의 보기가 (그림 1)이다.

여기서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시·면·동·리는 포장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노력한다.

▲제조·판매사업자는 시·면·동·리가 분리수거한 포장폐기물을 인수하고 가능한 재생이용 및 비용부담을 한다.

▲개개 사업자를 대신하여 사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제3기관이 포장폐기물을 인수하여 재생이용을 대

행하는 시스템을 창설하고 사업자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장치를 도입할 것도 검토해야만 한다.

3. 제3기관의 역할

공익법인으로 설립할 구상인 제3기관에 관하여 법적 성격, 업무내용, 비용의 지불방법과 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금후 관련업계, 지방공공단체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및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기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시·면·동·리에서 인수한 포장폐기물을 재생자원이용 메이커에 인도한다. 이때 매각 가능한 경우는 시장 가격에 따라 매각하고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한 비용을 재생자원 메이커에 지불한다.

▲재활용 관련 시설의 정비, 분리수거에 관한 기술적 지원 등 분리수거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행하는 시·면·동·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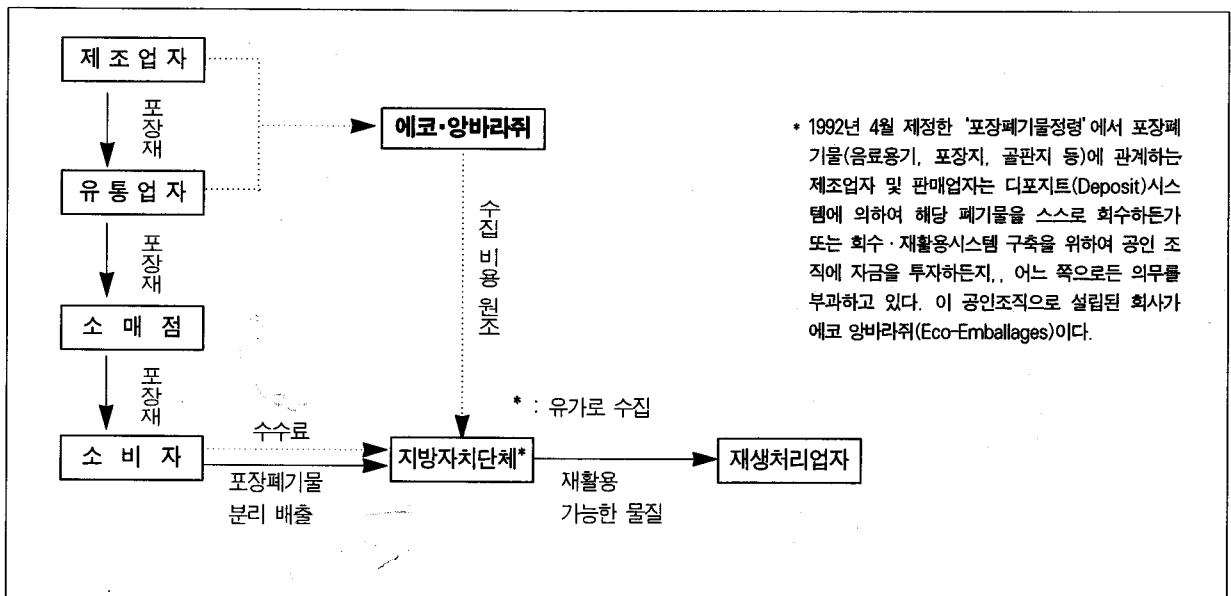
▲비닐봉투 등 판매 단계에서 사용하는 포장은 판매업자가 가능한 점포에서 인수하든가 제3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한다.

또한 수송용 포장의 회수·재이용에 관해서는 일반폐기물로서 배출된 경우 시·면·동·리는 종량제에 따라 처리 수수료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면·동·리, 유통업계, 후생성은 과잉포장 억제에 위하여 적극적인 개발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포지트(Deposit), 제조나 제품과징금 등에 관하여서는 관리 비용이나 관계자의 이해를 얻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2)신시스템에 참고가 된 프랑스식 리사이클 시스템



신문·잡지 등 폐지의 재생이용 추진에 대해서는 폐지 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재생이용 시스템이 정착됐으므로 국가, 지방공공단체는 신폐기물처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생사업자 등록의 추진, 집단 회수의 확대, 적환장 등 설비 대여, 경영의 근대화·합리화·공동화의 촉진 등을 추진한다. 민간 폐지 회수경로의 건전한 육성에도모하고 폐지의 회수·재생이용을 더욱더 추진해야만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기기계·기구의 감량화·재생이용의 추진에 관해서는 제조·판매사업자의 책임 하에 인수·재생이용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업계의 이해를 구하였다. 여기에 시·면·리·동이 처리에 곤란을 초래하는 제품에 관해서는 지정 일반폐기물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폐품 취급이 상관습으로 정착되어 있는 폐품은 사업자의 '필요적 협력'으로 폐품 인수를 구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디포지트제도 등 제품 특성에 따른 회수, 재생이용 구조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4. 음식찌꺼기 처리

음식찌꺼기의 감량화·재생이용을 위하여 통상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량제에 의한 처리 수수료 징수를 철저히 하고 배출 억제에 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고속 퇴비화 시설의 정비 및 가정에 간이 콤포스트의 보급을 꾀하고 자가 처리를 호소하였다.

사업계 일반폐기물의 감량화·재생이용에 관해서는 대책강화를 지적하였다. 사무실 내회(內會) 방식에 의한 폐지 회수대책 등의 창의적인 고

안과 사업자의 처리비용 부담을 명기하였다.

산업폐기물의 감량화·재생이용에 관해서는 시·도가 산업폐기물 처리계획 정책에 따라서 감량화·재생이용을 추진할 필요성을 지적, 개별 품목이나 업종에 수치 목표를 설정하여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공통적이고 수평적인 대책으로써 다음을 열거하고 있다.

▲제품 어세스먼트(Assesment : 평가)의 추진

▲재생 용도의 개발과 보급

▲재생품, 재생자원의 수요 확대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정비 추진

▲중간처리의 철저

▲폐열을 이용한 서멀 리사이클(Thermal Recycle)

5. 최종처분장 확보

부족한 최종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여 '최종처분장 정비는 광역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처분장을 건설할 때에는 법적 조성을 도입하여 도로, 스포츠·리크레이션 시설이라는 공공시설의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더욱이 폐기물 반입 체크 제도의 강화,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여를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얻어야만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폐기물의 감량화·재생이용을 추진하는 쓰레기·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인수, 재생이용 시스템의 도입 등 각종 폐기물의 특성에 따른 새로운 시책의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책 실시에 있어서 지방공

공단체, 사업자, 소비자가 상호 협력하고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연대하여 쓰레기 제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무리지었다.

후생성은 이번의 보고를 받아서 차기 통상국회에 신리사이클 시스템의 구축을 종합한 신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